

# 경제위기와 자살 :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경기변동과 자살
  - III.1. 경제위기와 자살: 한국, 멕시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 III.2. 회귀분석
- IV. 자살이 경제위기에 민감한 이유
- V. 결론

## I. 서론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특히 한국의 자살률은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중에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Chong-Sup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ongsup@snu.ac.kr), "Economic Crisis and Suicide: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Three Latin American Countries".

자살은 실업률, 소득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이혼율, 알코올 소비량 등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비슷한 경우에도 국가마다 자살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자들은 이를 국가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가 간의 자살률을 비교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소득과 실업률이 다를 경우 자살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실업률과 소득 등의 경제적인 변수가 변할 때 자살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이유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적다.

1990년대 들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나라는 많지만 자살률이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급증하였지만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는 자살률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중남미 3개국에서 경기변동 또는 경제위기가 자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만약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주는 영향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로 다르고 그 사회·경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자살에 대한 이론은 경제적인 접근과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학적 접근을 취한 대표적인 논문인 Hamermesh and Soss(1974)는 개인이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은 인생의 기대효용이 0으로 떨어지면 자살한다고 가정한다. 효용은 소득 또는 소비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대소득의 감소는 자살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접근은 자살이 실업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예상한다. 경제학적 접근에서 계량적인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변수로는 1인당 GDP, 실업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소득분배 등이 있다. 사회학적인 접근은 자살이 이혼율과 범죄율 등 사회적 해체를 나타내는 지표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예상하며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Durkheim(1957)이 있다. 사회학적 접근에서 많이 사용하는 변수로는 이혼율, 출산율, 알코올 소비량, 종교 등이 있다.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Viren(2005)은 핀란드의 1878-1999년 자료를 사용하여 자살률이 소득의 예상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Breinerd(2001)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발틱 국가 등 구소련 국가들에서 자살률,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한 것은 계속된 국민소득 하락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Rodriguez(2006)는 40개국의 1947-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학적 변수와 사회학적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이혼율, 출산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등이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1인당 GDP, 소득불평등, 알코올 소비량은 자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Watanabe et al.(2006)은 1990년 말과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남성 자살률이 급증한 이유가 실업률과 개인파산의 증가 등 경제적 인 원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자살률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경제적인 접근에 기초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상승하면 가정의 소득수준과 효용수준이 올라가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견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정 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져 가정 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자살률이 상승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국가와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sup>1)</sup>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분석 대상 국가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자살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여러 개 국가를 포함하는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자살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추정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변수들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도 자살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 변수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

1) Stack(1987) 참조.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적인 차이 등 국가 간의 차이로 설명한다.<sup>2)</sup> 그러나 회귀분석에 포함된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이 나타내는 차이 이외에 국가간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자살률의 차이를 가져 오는지 설명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에는 자살률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경제 변수가 자살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앞서 설명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이 상승하면 자살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성장률이 자살에 주는 영향이 국가마다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다를 경우 왜 다른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회귀식에서 절편의 차이뿐 아니라 기울기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이뿐 아니라 문화적인 변수와 경제적인 변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 III. 경기변동과 자살

#### III.1. 경제위기와 자살 : 한국, 멕시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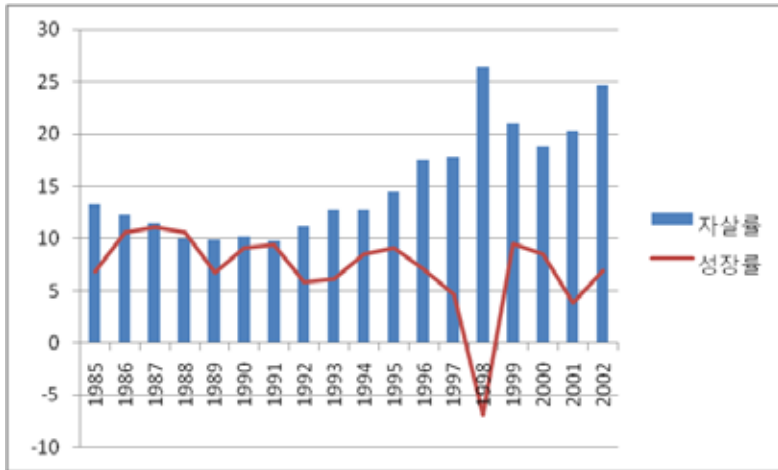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고 전체 자살률의 변화는 남성 자살률의 변화를 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살률보다는 남성 자살률을 이용하였다. 남성의 자살률이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다는 것도 이 변수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살률 자료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Mortality Database의 Number of Registered Deaths에서 Suicide and self-inflicted injury(X60-X84)로서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남성 자살률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85년 이후 1989년까지는 매년 감소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

2) Rodríguez(2005; 2006), Brainerd(2001) 참조.

인구 10만명당 17.8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살률의 추세적 증가에 대한 원인은 인구고령화, 도시화와 인터넷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에는 26.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하였다는 것과 그 여파로 실업률이 전년의 2.6%에서 6.8%로 급증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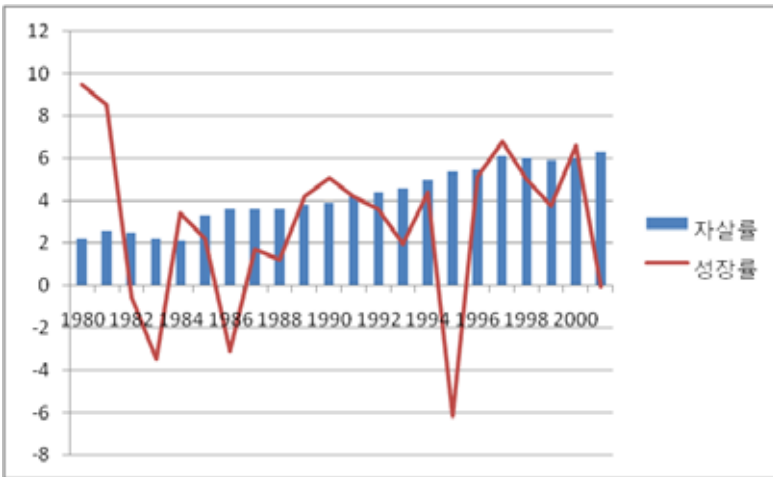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성장과 자살률: 한국

멕시코에서의 자살률은 2-6으로서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대에는 1980년대 초의 3배에 이르게 되어 추세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한국보다 앞서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겪은 멕시코에서는 언뜻 보기에 자살률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자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의 시차를 두고 자살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83년 외채위기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해에 자살률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1985년 이후의 자살률은 그 전 5년에 비해 크게 증가

3) 노용환(20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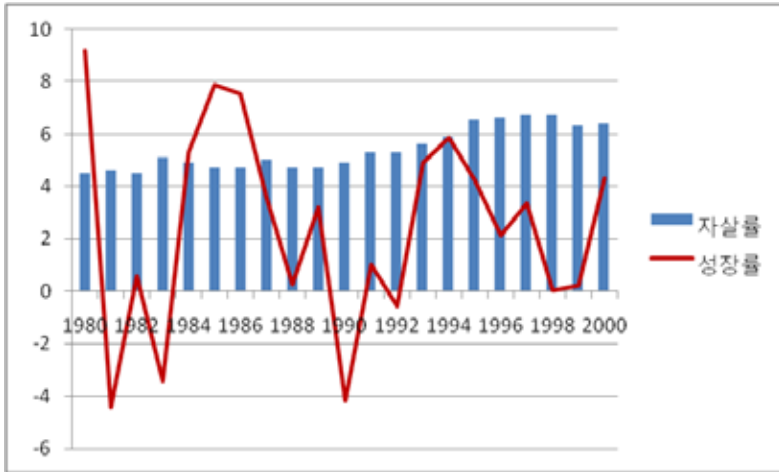
하였다. 그 이유는 외채위기가 정부부문에서 발생하여 일반인들에게 체감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1983년 외채위기를 맞은 멕시코 정부는 1983년과 1984년에 긴축정책을 수행하여 1985년에는 공무원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였으며 이때 자살률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말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여 1995년 성장률이 -6.2%를 기록하였을 때도 자살률은 즉각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2년이 지난 1997년 이후에야 자살률이 약간 증가한다. 이도 역시 정부부문의 위기가 일반인들에게 파급될 때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비하여 1986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자살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때의 경제위기는 석유값 하락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민간부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 경제성장과 자살률: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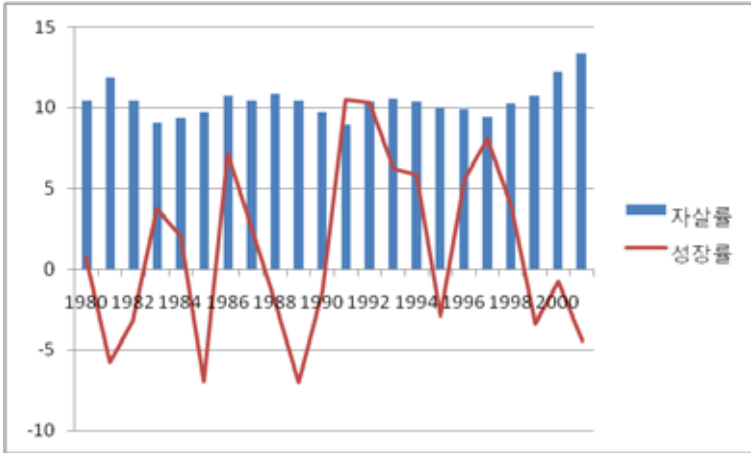
브라질에서는 자살률이 4.2-6.5로서 한국보다 낮으며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증가율은 멕시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에서는 1980년과 2000년 사이 여러 번의 경제위기로 성장

률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지만 자살률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경제성장률과 자살률: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의 자살률은 멕시코와 브라질보다는 높은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추세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 경기가 침체하면 자살률이 상승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다. <그림 4>에서 보듯이 1981년 경제성장률이 -5.7%를 기록하였을 때 자살률은 11.9로 그 전 해의 10.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983년 성장률이 회복하였을 때는 자살률도 줄어들었다.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았던 1991년과 1997년에도 자살률은 다른 해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살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5년과 1989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의 자살률은 경기변동에 반응하긴 하지만 그 반응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4〉 경제성장률과 자살률: 아르헨티나

이상에서 한국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자살률이 어떤 수준에 있으며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경기변동에 따라 자살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림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멕시코에서는 자살률이 시차를 두고 경제위기에 약하게 반응하며, 브라질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자살률이 경기변동에 반응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자살이 경기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III.2. 회귀분석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상황이 자살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 모델의 종속변수에는 자살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살은 도시화와 산업화, 개인주의화 등 사회가 현대화됨에 따라,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화율 또는 시간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자살률의 자료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Mortality Database에서 Number of Registered Deaths 중 Suicide and self-inflicted injury(X60-X84)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World Outlook Database를, 도시화율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 때문에 회귀식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중의 한 변수와 도시화율과 시간 중의 한 변수만을 포함하였으며,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ochrane-Orcutt의 자기회귀모형(AR1)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자살률이 경제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표 1>의 모델 1에서 성장률과 시간의 계수는 모두 예상된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성장률의 계수가 -0.368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0.368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델 2에서는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자살률이 1.508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델 1은 또한 자살률이 1년에 1.068씩 증가함을 보여주며, 모델 3에서는 도시화율이 1% 진전될수록 자살률이 1.591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R<sup>2</sup>는 도시화율보다는 시간을 포함하였을 때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두 변수 모두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때 도시화율보다는 도시화를 뿐 아니라 고령화, 이혼율, 출산율 등 추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여러 현대화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살의 증가를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경제성장률과 자살률: 한국 1985-2002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장률	-0.368** (-3.567)		-0.372** (-3.128)	
실업률		1.508** (3.345)		1.734** (3.379)
도시화율			1.591** (2.299)	1.123** (3.027)
시간	1.068** (3.942)	0.829** (4.819)		
R <sup>2</sup>	0.718	0.798	0.576	0.666
N	18	18	18	18

주) 괄호 안은 t-값 나타냄 /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멕시코의 경우 <표 2>의 모델 1에서 경제성장률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시간에 따라 매년 자살률이 0.216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시차를 두고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2에서는 3년 전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성장률(-3)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3년 전의 경제성장률이 자살률에 대하여 약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부문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일반인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R<sup>2</sup>가 0.9 가 넘을 정도로 모델의 설명력이 높는데, 그 이유는 멕시코의 자살률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도시화율보다는 시간이 훨씬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경제성장과 자살률: 멕시코 1980-200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장률	-0.004 (-0.211)		-0.012 (-0.684)	
성장률(-3)		-0.035** (-2.088)		-0.023 (-1.263.)
도시화율			0.644** (5.278)	0.708** (5.284)
시간	0.216** (12.663)	0.223** (15.994)		
R <sup>2</sup>	0.906	0.948	0.621	0.666
N	22	19	22	19

주) 괄호 안은 t-값 나타냄 /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브라질의 경우에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이 자살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특이한 점은 모델 3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화율이 자살률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적응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 경제성장과 자살률: 브라질 1980-2000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장률	-0.011 (-0.777)		-0.006 (-0.243)	
실업률		0.063 (1.229)		0.065 (1.269)
도시화율			0.180** (7.807)	0.158** (3.054)
시간	0.129** (3.770)	0.106** (3.330)		
R <sup>2</sup>	0.471	0.848	0.785	0.521
N	21	21	21	21

주) 괄호 안은 t-값 나타냄 /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아르헨티나에 대한 회귀분석의 경우, <표 4>의 모델 1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이 자살률에 주는 영향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성장률의 계수는 -0.066으로서 자살률이 성장률에 반응하는 정도는 한국의 -0.368보다 훨씬 약하다. 시간에 따라 자살률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도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화는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경제성장과 자살률: 아르헨티나 1980-2001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장률	-0.066* (-1.849)		-0.057 (-1.590)	
실업률		0.042 (0.397)		0.077 (0.749)
도시화율			0.273 (1.380)	0.107 (0.296)
시간	0.082* (1.807)	0.090 (0.790)		
R <sup>2</sup>	0.230	0.127	0.194	0.104
N	22	22	22	22

주) 괄호 안은 t-값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종합하면, 한국과 중남미 3개국에서 경기변동이 자살률에 주는 영향은 국

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기변동이 자살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매우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시차를 두고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경기변동이 자살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 IV. 자살이 경제위기에 민감한 이유

경기변동에 따라 자살률이 등락하며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자살률이 급증한 한국과 달리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살률이 경기변동과 경제위기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국가간의 자살률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할 뿐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sup>4)</sup> 게다가 국가간의 차이를 설명할 때에도 대부분의 논문은 자살률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할 뿐 자살률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문은 별로 없다. 본 논문에서는 왜 한국과 중남미 3개국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자살률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가를 설명하려 한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간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자살률이 다르게 반응하는 사회·문화적인 원인으로는 인터넷 등 대중 매체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 소득 불평등의 확대와 이를 참지 못하는 평등주의,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의 해체,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 강조와 40대 남성의 역할 등이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첫째, 인터넷 등 대중 매체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자살 증가의 원인이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 매체에 대한 수요가 적든가 접근성이 낮을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안에 대해 정보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4) Neumayer(2003), Rodríguez(2005) 등 참조.

이 위기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 매체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이 높은 국가에서 사람들은 경제상황과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들과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강하다면 대중 매체의 발달은 경제위기가 자살에 주는 영향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대중 매체가 경제위기로 인해 자살이 증가했다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파시킨다면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거부감을 덜게 되며, 이러한 효과가 강하다면 대중 매체의 발달은 경제위기가 자살에 주는 영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자살이 증가하였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에는 자살 사이트라는 것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같이 실행할 ‘동지’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두 번째 효과가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평등주의는 인터넷과 결합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하여 그러하였다.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한국에서의 평등주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사춘지간처럼 가깝게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며 비교하게 된다. 송호근(2006)은 한국인은 평등지향적이며, 불평등 구조에 대하여 나타나는 분노의 크기가 평균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바뀌었는데, 이는 평등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보다 사회적인 갈등을 더 많이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한국에서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나라보다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은 지수에 비해 훨씬 높다. 그 이유는 평등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 소득이 큰 쪽으로 감소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평등주의에 물든 사람의 경우 소득감소를 받아들이

기 힘들 것이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보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GINI계수가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훨씬 적으며 자살률도 낮다. 그것은 평등주의가 별로 강하지 않으며, 오랜 불평등을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것이 항상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불평등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불평등의 심화가 자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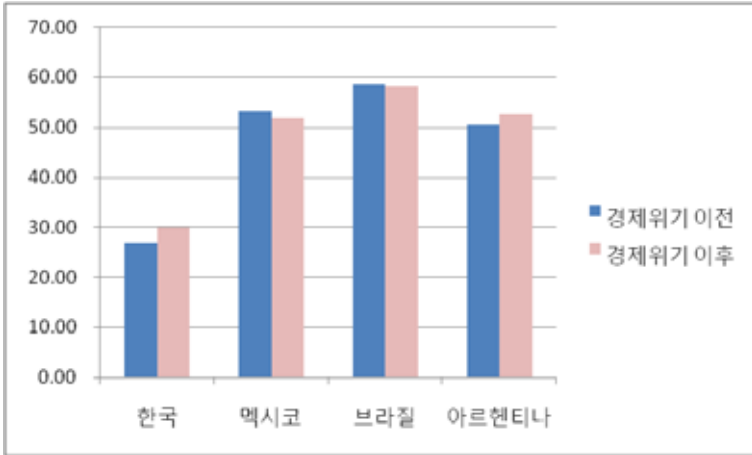
중남미 국가들에서 자살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이들 국가에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다. 경제위기 전후의 GINI계수를 보여주는 <그림 5>에서 보면 경제위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분배가 악화된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GINI계수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즉,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sup>6)</sup>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이후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sup>7)</sup>

소득불평등이 자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야 하는데, 평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항상 자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평등주의가 강할 때 자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살이 증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악화된 아르헨티나에서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과 달리 평등주의가 강하

5) 경제위기의 해는 한국의 경우 1997년, 멕시코는 1994년, 브라질은 1999년, 아르헨티나는 2002년 발생한 금융외환 위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소득분배의 변화는 위기 이전 2년과 위기 이후 2년의 GINI계수 평균으로 하였다.

6) López-Acevedo and Salinas(2000), Ferreira et al.(2006) 참조.

7) Gasparini and Arias(2007) 참조.



〈그림 5〉 경제위기를 전후한 각국의 GINI계수

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적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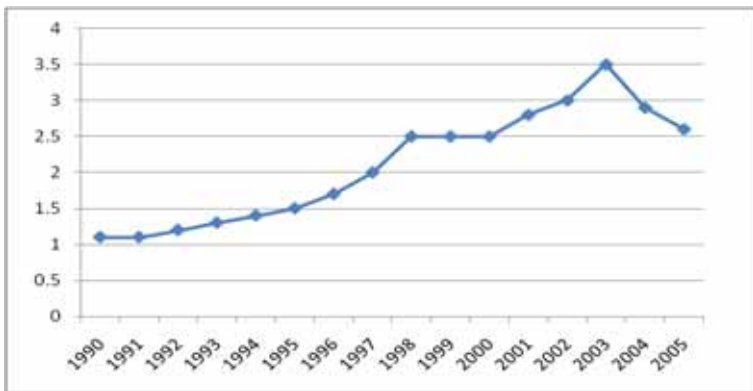
셋째, 경제위기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인 해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위기는 가정의 해체를 촉진하게 되며 가정의 해체는 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정 내 갈등을 심화시켜 가족 구성원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림 9>에서 한국의 이혼율을 살펴보았다.<sup>8)</sup>

이상한 현상은 한국의 경우 가정해체의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혼율이 1996년까지 급속하게 상승하다가 경제위기가 널리 퍼진 1998년 이후에는 오히려 한동안 멈춰 섰다는 것이다. 몇 년이 지난 2000년 이후에는 이혼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혼율과 자살률을 비교하면 경제위기 이후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혼율은 증가가 멈춘 반면 자살률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경제위기는 가계소득을 하락하게 하여 가

8) <그림 6>의 이혼율은 조이혼율로서,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안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정 내 갈등을 증가시켜 이혼과 가정해체를 유발할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명예퇴직의 증가와 구직의 어려움, 실업자의 증가 등은 부부 각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어렵게 만들어 이혼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부 중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하여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동거의 지속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지만 가정 내 갈등과 정신적인 고통은 증가할 수 있다. 즉, 경제위기는 이혼 유발요인을 증가시키지만 이혼이라는 대안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자살이라는 대안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혼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도 자살의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살을 사회학적 접근으로 설명하려 할 때 이혼율이 증가하면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많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노용환(2006)은 이혼율의 증가가 자살률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 Rodriguez(2006)는 이혼율의 증가가 여성의 자살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혼율의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가정의 해체를 가져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위기로 이혼율이 억제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율의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꼭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살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림 6〉 한국의 조이혼율: 1990-2005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 강조와 40대 남성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자살의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괴로움도 적을 것이며 자살 충동도 적을 것이다. 한국은 가부장적 문화요소가 강하며 남성 가장에게 가정의 경제, 특히 소득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지운다. 이러한 문화적 여건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와 구조조정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을 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은 40대 남성을 궁지로 몰아 결국 자살이라는 탈출구를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sup>9)</sup> 중남미 국가에서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이들 국가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요소가 한국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이 부부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가 한국의 경우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5〉 경기변동과 40대 남성의 자살률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경제변동 <sup>a</sup>	2.356** (3.964)	0.069 (0.416)	-0.049 (-1.298)	-0.074* (-1.958)
시간	0.909** (4.238)	-0.039 (-0.277)	0.140** (2.836)	0.193** (7.240)
R <sup>2</sup>	0.801	0.012	0.353	0.790
N	18	22	21	19

주) a.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실업률을 브라질은 경제성장률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3)을 사용하였음

b.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 \*와 \*\*는 각각 10%와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40대 남성의 자살률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향 받는 정도가 다른 인구집단보다 강하였다. 그러

9) 이미숙(2001) 참조

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중에서는 멕시코에서만 40대 남성의 자살률이 경제변동에 영향을 받았을 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 V. 결론

많은 연구자들이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또 실증적으로도 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과 중남미 3개국에서 경기변동이 자살률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는 경기변동이 자살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매우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시차를 두고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브라질의 경우 경기변동이 자살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간에 경기변동에 따라 자살률이 다르게 반응하는 사회·문화적인 원인으로는 인터넷 등 대중 매체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이를 참지 못하는 평등주의 사고방식,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의 해체,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과 40대 남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 등이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Abstract ■

Many researchers argue that the outbreak of a financial crisis and the rise of unemployment rate increase the suicide rate, and present some empirical evidence. However, this relationship is different across countries.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cycle and suicide reveals that economic fluctuations had a very strong influence in the suicide rate in Korea, whereas the suicide rates of Argentina and Mexico were only slightly affected by economic fluctuations. As for Brazil, economic situation had no effect on suicide. The reasons of this difference are: internet access and demand,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egalitarianism, family dissolution, and the pressure given to the head of household.

Key Words: Suicide, Economic Crisis, Unemployment Rate, Divorce Rate / 자살, 경제위기, 실업률, 이혼율

논문투고일자: 2010. 03. 09

심사완료일자: 2010. 05. 11

게재확정일자: 2010. 05. 13

■ 참고문헌 ■

- 노용환(2006),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우리나라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접근」, 경제학연구, 54(3), 한국경제학회, pp. 177-200.
- \_\_\_\_\_ (2007), 「자살위험의 미시적 결정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제13권 제1호, pp. 41-58.
- 송호근(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SERI 연구에세이 047.
- 이미숙(2001), 「40대 남성사망률 -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학, 제35집 4호, pp. 189-212.
- Brainerd, Elizabeth(2001), “Economic Reform and Mortality in the Former Soviet Union: a Study of the Suicide Epidemic in the 1990s,” *European Economic Review* 45, pp. 1007-1019.
- Chen, Joe, Yun Jeong Choi, and Yasuyuki Sawada(2008), “How is Suicide Different in Japan?,” CIRJE Discussion Papers CIRJE-F-557.
- Durkheim, E.(1897), *Le Suicide*, (trans.)J. Spaulding and G. Simpson, *Suicide*(1951), New York: Free Press.
- Ferreira, Francisco, Phillippe Leite, and Julie Litchfield(2006), “The Rise and Fall of Brazilian Inequality: 1981-2004,” World Bank Working Paper 3867.
- Gasparini, Leonardo and Omar Arias(2007), “Pobreza y desigualdad en Argentina,” paper presented at Seminario Las Políticas Sociales en Argentina hacia el Bicentenario, Buenos Aires.
- Hamermesh, D. and N. Soss(1974), “An Economic Theory of Suici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pp. 83-98.
- Koo, Jahyeong and W. Michael Cox(2006),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Suicide Cycles in Japan,”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0603,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USA.
- López-Acevedo, Gladys and Angel Salinas(2000), “How Mexico’s Financial Crisis Affected Income Distribu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406.
- Neumayer, Eric(2003), “Are Socioeconomic Factors Valid Determinants of Suicide? Controlling for National Cultures of Suicide with Fixed-Effects Estimation,” *Cross-Cultural Research*, Vol. 37, No. 3, pp. 307-329.
- Rodríguez, Antonio(2005), “Income Inequality, Unemployment, and Suicide: A Panel Data Analysis of 15 European Countries,” *Applied Economics*

37, pp. 439-451.

- \_\_\_\_\_ (2006), "Inequality and Suicide Rates: a Cross-Country Study," Development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13/2006, Institute for Advanced Development Studies.
- Stack, Steven(1987), "The Effect of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on Suicide: a Time Series Analysis, 1948-1980," *Sociological Forum*, Vol. 2, Issue. 2, pp. 257-277.
- Stack, Steven and Augustine Kposowa(2008), "The Association of Suicide Rates with Individual-Level Suicide Attitudes: a Cross-National Analysi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9, No. 1, pp. 39-59.
- Viren, Matti(2005), "Suicide and Business Cycles: New Empirical Evidence," *Applied Economic Letters* 12, Routledge, UK, pp. 887-891.
- Watanabe, Ryoichi et al.(2006),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Difficulties Affecting the Suicide Rate in Japan," Discussion Paper No. 626, Kyoto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Japan.